

한글특수사전, 어떤 것들 나와있나

최근들어 점차 활기... '뜻있는 개인'의 작업만으로는 한계

가령, 강원도의 어느 산길을 지나다가 통나무를 井자 모양으로 엮고 그 틈을 흙으로 메워 지은 집을 발견했을 때,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인지 그 정확한 이름을 손쉽게 찾아볼 만한 사전이 있는가. 또, '마개'나 '집게'와 같은 접미사로 끝나는 어휘가 우리말에 몇개나 있는지 알고자 하거나, '실새없이'와 같이 자주 쓰는 속어를 지금처럼 '쉬다' '새(사이)' '없다' 표제어를 일일이 찾아 뜻을 켜야 하는 불편없이 한번에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이용할 사전이 있는가. 나아가, '금방' '금세' '막' '방금'과 같이 비슷하게 쓰이면서도 섬세한 용법 차이가 있는 단어를 적절하고 풍부한 용례를 들어 깔끔하게 설명해 놓은 사전이 있다면 정확한 언어구사에 얼마나 요긴하게 이용될 텐가.

80년대 중반 이후 「역순사전」 등 선별

국어를 말하고 쓰면서 부딪치는 이같은 아쉬움은 뜻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데 이용되도록 편찬된 보통의 국어사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때마다 다양한 의문에 답해줄 특수사전의 필요가 갈급해지는데 분류사전, 역순사전, 유의어사전, 반대말사전, 갈래사전, 형용사사전, 은어사전, 발음사전, 방언사전, 古語사전 등 보통 국어사전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현재 출간되어 있는 이들 특수사전들은 굳이 대형서점 외서부에 나와있는 놀랄만큼 다양한 외국의 특수사전에 비교해보지 않더라도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부딪치는 금급증을 풀어주기에는 종류가 턱부족인 실정이다.

사전은 한나라 문화의 온축임과 동시에 발전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런 점에서 국어연구자나 작가, 인접학문 연구자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잘 만들어진 사전에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이다.

우리말사전이 용도에 따라 세분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60, 70년대부터이지만 활발한 출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 「우리말 역순사전」(1985)의 간행을 고비로 해서이다. 이 사전은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강사로 있던 유재원(한양대 교수)씨가 언어의 합성법 및 파생법 등 조어법연구와 형태소연구에 꼭 필요한 역순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당시 언어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11명과 함께 2년여의 작업 끝에 3만7천여 단어를 수록한 것이다. 일반국어사전이 ㄱ 나 드...순, ㅏ ㅑ ㅓ...순에 받침순으로 단어가 배열되어 있는 반면 이 사전은 받침부터 낱말이 배열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색을 나타내는 '까망 노랑 빨강 파랑' 등의 낱말들은 일반국어사전에선 'ㄱ 나 ㅏ ㅑ' 부분에 분산되어 실려 있지만 역순사전에서는 모두 'ㅇ' 받침에 모이게 되어 낱말들의 형태와 의미 사이의 상관관계를 훨씬 쉽게 파악하는 데 쓰인다.

「우리말 분류사전1·2」(1988)은 토박이말을 그 쓰임새에 따라 분류한 특수사전으로 이름씨(명사)편과 풀이말(동사·형용사)편 2권으로 되어 있다. 재야국어학자 남영신씨가 국내 처음으로 펴낸 이 분류사전은 어려운 낱말의 뜻을 찾아보는 일반 국어사전과는 달리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물건의 용도는 아는데 그 정확한 이름을 몰라 갑갑할 때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사전이다. 1권은 건축·가정·음식 등 18개의 큰항목 아래 165개의 소항목을 설정, 약 2만개의 토박이말을 수록하고 있고, 2권은 쓰임새에 따라 151개 항목으로 뭉가름되어 약 1만5천개의 말들이 들어 있다.

시인이자 사진작가인 박용수씨가 청력마비라는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자저가는 우리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 10년의 각고 끝에 엮어낸 「우리말갈래사전」(1989)은 순수우리말 3만6천단어를 뜻갈래와 쓰임새에 따라 분류, 간단한 뜻풀이를 곁들이고 있다. 우리말을 용도와 동류성에 따라 사람의 의·식·주생활, 산업, 동·식물 등 33개 항목으로 나눈 후 그것을 다시 품사와 내용별로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식생활과 관련된 도구들이 찾고 싶다면 해당 부분을 뒤지면 400여개의

식생활용품의 이름이 나온다. 따라서 독서용으로 보게 돼 있는 기존사전과는 달리 문필가들을 위한 '작문용'사전으로 주로 활용되게끔 했다.

문필가를 위한 '작문용' 사전

활용목적에 따라 편찬된 특수국어사전과는 달리 하나의 품사만을 집중적으로 수록한 사전도 발간됐다. 최근에 나와 화제를 모은 「형용사사전」(박준하 외 / 1991)은 전북도청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이 20여년의 진득한 작업 끝에 펴낸 것으로 기존의 국어사전에 담겨 있는 6~7천개 형용사의 두배가 넘는 1만3천여 어휘가 수록돼 있는데, 재야연구자에 의한 최초의 형용사사전이란 점에서 학계에 적잖은 자극을 주었다. 자칫 사어로 문힐 뻔했던 다채

한 동 희 에 세 이 사람, 그 한 사람

이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을 위한
자리 비워 두고 서성이면
사랑 모르는 가난한 마음에
따스한 숨결 보내주는
사람, 그 한 사람.

일상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잔잔한 수필의 묘미를 만끽 하십시오

신국판/225면/3,500원

한분옥 에세이 꽃과 여자 그리고 정염

작가 특유의 여성적이고 동양적인
수필을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통의 멋을, 섬세하고
담담한 필체로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처럼 엮어 나간 수필집.

신국판/250면/3,800원

김경실 에세이 사랑 멀리

시적 수필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
-스포츠 조선-
시적인 감각과 필치로
씩어진 수필집 -서울신문-
이별의 연습이 필요한
인간생활들을 생활인의 예술로
작품화 했다. -스포츠 서울-

신국판/202면/3,500원

朴根瑛 詩選集

洗衾亭 베꾸기

가장 한국적인 애정과 이해는 가장 세계
적인 우주적인 애정과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시대성에 민감하면 민감할
수록, 안정과 질서를 바라는 전통에 변혁과
혁신을 혈육화할 때 비로소 진실한 현대시
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박근영의 시에 그 기대를 걸고 갈채를 보
내는 바이다.

咸東鮮, (제3시집 발문에서)

신국판/188면/3,000원

한강문화사

서울 중로구 사직동 7-2(사직회관 205)
전화 722-7311, 팩시 723-1188

로운 형용사를, 발굴, 선조들의 멋스러운 표현을 되살려놓았다.

또한 정확한 언어운용을 돕는 반대말·비슷한말 사전은 여러종 나와 있다. 「동의어·반의어 사전」(배무아 / 1986) 「反意語辭典」(전수태 / 1990) 그리고 강릉대 김광해(국문과) 교수가 지난 87년 펴낸 「類意語·反意語辭典」과 이때 유의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반의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지난해 펴낸 「반대말사전」이 있다. 이 사전은 그간 막연하게 사용돼 오던 반의어 상대어 대립어 맞섬말 등을 포괄하여 구성, 간단한 용례도 덧붙임으로써 말의 다의적 표현을 살필 수 있게 한다.

유의어사전은 글쓰는 이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능동적으로 떠올린 어휘 외에 그보다 더 적합한 다른 어휘가 또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가운데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내용을 가장 적절히 전달해줄 말을 쉽게 고를 수 있게 하는데 활용된다. 「반대말사전」의 편찬자 김광해 교수가 87년 펴낸 「유의어사전·반의어사전」은 반의어가 일부 들어가긴 했으나 대표적인 유의어 사전으로 꼽힌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을 표제어로 비슷하게 쓰이는 여러가지 말을 실고 있는데, 자세한 뜻풀이나 용례가 알고 싶으면 큰사전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다.

현대어의 다양한 운용을 돕는 이와같은 사전의 등장과 함께 신라시대나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옛말에 관한 사전들은 몇종 되지 않으나 비교적 오래전에 간행됐다. 76년 발간된 「이두사전」(정지영·장세영)은 어휘를 이두 표기 한자의 현대음에 따라 ㄱ...순으로

배열, 자세한 뜻풀이와 함께 「光海日記」「大明津直解」등 옛문헌에 나타난 용례를 곁들여 이루어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어왔다.

또한 「李朝語辭典」(유창순 / 1964)은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당시 사용어 가운데 한자어를 제외한 正音표기어만을 표제어로 삼은 조선시대 언어사전이다. 이조어 연구자들과 이조문헌 이용자들을 위한 이 사전은 요즘 쓰이는 말이더라도 이조문헌에 기록돼 있는 말이라면 모두 채록, 현대어의 뿌리 및 당시의 언어운용을 살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인하대 남광우 교수가 일조각과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古語辭典」은 고전문헌에 기록돼 있는 古語들을 총망라, 1만1,315개의 표제어를 실고 있다. 어휘의 출처 및 음운의 변천과정과 인용도서의 해제도 달아두었다.

최근 편찬한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91)은 고전연구의 첫걸림돌인 어려운 고전용어를 쉽게 풀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사왕조실록 등 고전독해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회장 손보기)가 모두 3권으로 간행할 계획으로 먼저 선보인 1권은 역사문헌에 수록된 한문용어를 뜻풀이하고 출처와 용례를 밝혀 옛문헌에 대한 접근을 한결 쉽게 해준다.

이밖에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언어운용을 엿보게 하는 사전으로는 먼저 각 지방의 사투리를 채록한 방언사전이 있다. 방언의 체계적 연구는 우리말의 언어현상과 생성·변천과정을 밝혀주는 구실을 함으로써 국어의 내재적 특성을 규명하는 한편 각 지방사람들의 사고유형과 의식구조를 유추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작

업이다. 현재 나와 있는 방언사전은 전국규모의 「방언사전」(최학근 / 1978) 외에 평북강계 지역의 사투리를 담은 「평북방언사전」(김리협), 그리고 지역방언연구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린 「제주방언사전」(석주명·현평효), 「함북방언사전」(김태균) 등이 나와 있다. 주로 방언사전은 천문, 지리, 가옥, 음식, 곡류 등으로 항목을 분류, 표준말 표제어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독특하게 발음되어 있는지를 흥미롭게 관찰하게 한다.

이밖에도 학생어, 사창어, 도박어, 이발사어, 승려어 등 각 집단의 향용어를 수록한 「어어사전」(장태진 / 1963)을 비롯해 「한국어 표준발음사전」(전영우 외 / 1984) 「속담사전」 「민담사전」 「고사어원사전」 등이 현재 서점에 나와있는 특수사전들이다.

연구소나 정부 차원에서 편찬 주도해야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특수사전은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고 이용자들은 말한다. 그런 이유 중의 한 예로, 역순사전과 갈래사전의 경우 고유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술가 건축가 역술가 무용가와 같이 한자 '家'로 끝나는 어휘가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결점이 있다. 이는 우리말의 60%가 한자어임을 감안할 때 온전한 사전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60, 70년대에 만들어진 고어사전류도 한자어는 표제어로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고 예문들도 형태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해두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이용자들이 참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의 편찬은 한때의 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를 두고 끊임없이 검토·수정·보완·증보하는 작업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간행된 이후 고쳐나간 흔적이 드물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이용의 한계로 든다.

이는 곧 사전편찬의 주체와도 밀접히 연결되는데, 여태까지 발간된 대개의 특수어사전들은 우리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거나 필요성을 절감한 재야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가 대부분이다. 이는 수정·보완에 많은 시간이 걸려 효과적으로 좋은 사전을 만들기에겐 여러모로 어려움이 따른다. 한글학회 조재수씨는 “사전편찬은 어느 개인의 신념에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편찬의 주체가 연구소나 정부가 주도하여 각부문의 전문가들이 집결해야만 좋은 특수사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직 빠져있는 것으로 어원사전이나 용례사전의 편찬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와함께 단순한 유의어사전을 넘은 의미별사전, 수식어사전, 형태소사전, 명칭사전 등도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혜옥 기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장력향상의길잡이

서정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정보학회 부회장

“사고력과 문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충실한 길잡이”

설명문, 논술문, 수필, 기행문, 보고문, 기사문, 일기, 편지, 학술논문, 기말 리포트 등의 작법을 자세하게 다루어 교육자와 학생들의 문장 지침서가 될 것이다

신국판/757면/정가(보급판) 9,800원
(양장본) 13,000원

오동춘 위당 시조 연구

위당 정인보의 시조문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지은이가, 위당시조의 시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서사시조의 발생 면모를 밝혀 놓은 연구서

신국판/236면/5,000원

한강문화사 전화 722-7311
팩시 723-1188
서울 중로구 사직동 7-2(사직회관 205)

우리말 분류사전

엮은이 남영신

제1권 이름씨 편
제2권 풀이말 편
(부록: 북한에서 쓰이는 우리말)

4 × 6 배판 각권 36,000원

외래어에 오염되고있는
아름답고 순수한 우리 토박이
말을 살립니다

부록으로 최근 발표된 '표준어 모음'을 비롯하여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고 해설편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맞춤법과 표준어 문제를 다루고 있어 사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엮은이 남영신

신국판 760쪽,
양장제본/값 18,000원